

## 2013년 정부 예산안

## 균형재정·경기부양 '절충'… 분야별 고른 배분

저성장 기조 속 빠듯한 '나라곳간' 협력 고려

## ■ 예산안 들여다보니

정부가 25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경기를 살리면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해야 하는 상충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졌다.

성장률이 올해 2%대로 떨어지고 내년에도 3%대에 그쳐 정상궤도를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지만 나라 곳간을 활짝 열기에는 재정 상태가 여의치 않은 현실을 고려한 절충안이다.

정부는 내년 재정수지의 적자를 국제기준의 균형 범위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균형재정·경기대응 '두 마리 토끼' 잡기=정부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균형재정 기조 범위에서 최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8.6% 증가한 373조1000억원으로 전망하면서 총지출은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수입 증가율은 올해 9.3%보다 낮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와 같은 5.3%를 유지했다.

이 가운데 재정용자 6조7000억원을 이자보전 방식으로 돌려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2.0%포인트 얹은 7.3%가 되는 효과를 유도했다.

이렇게 이차보전으로 돌리면서 가능할 수 있게 된 기준 융자지출 3조5천억원 규모는 경기대응 1조5000억원(지역 SOO 투자, 산업·중기 지원), 민생안전 7000억원(일자리, 가계부채 안정 지원) 지방지원 1조3000억원(취득세 인하, 자자체 보육예산 부담완화) 등에 쓰이로 했다.

◇분야별 고른 배분···SOC·산업·증기·농식품 배려=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중점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 ▲일자리·복지·안전을 위한 '든든 예산'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 예산' 등을 내세웠다.

12대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한 현황을 보면 뚜렷한 특징을 갖기보다는 고르게 나눈 모습이다.

다면 세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재정의 경기대응 요구가 커지자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환경 등을 배려한 측면도 있다.

특히 SOC은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 20조8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 많은

23조9000억원을 배정해 주목됐다. SOC는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된다.

산업·중기·에너지 분야도 부처 요구안은 14조3000억원이었으나 예산안에서는 15조7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농림수산식품 역시 요구안보다 1조원 많은 18조3000억원, 환경은 7000억원 증액된 6조3000억원이 각각 배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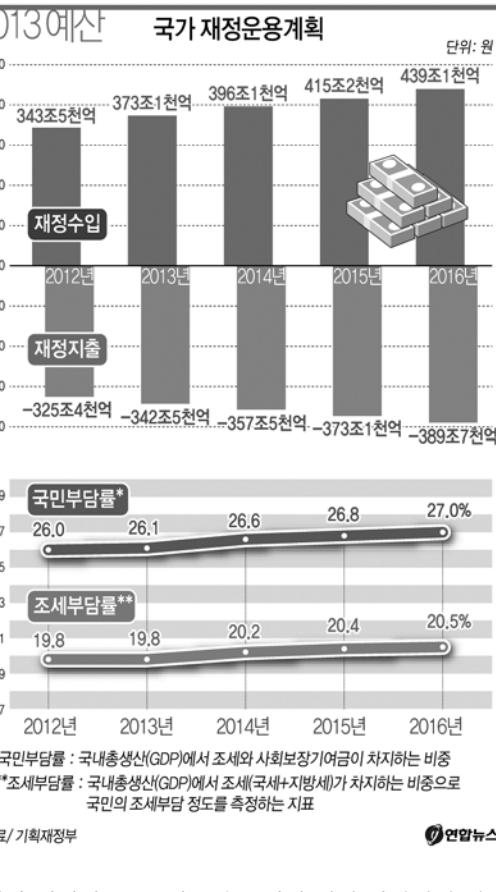
규모가 가장 큰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요구안 97조5000억원에서 4000억원 꾸며 4.8% 증가에 그쳤다.

◇국회로 넘어간 공·

대선 영향받나=정부

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어 정부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료/기획재정부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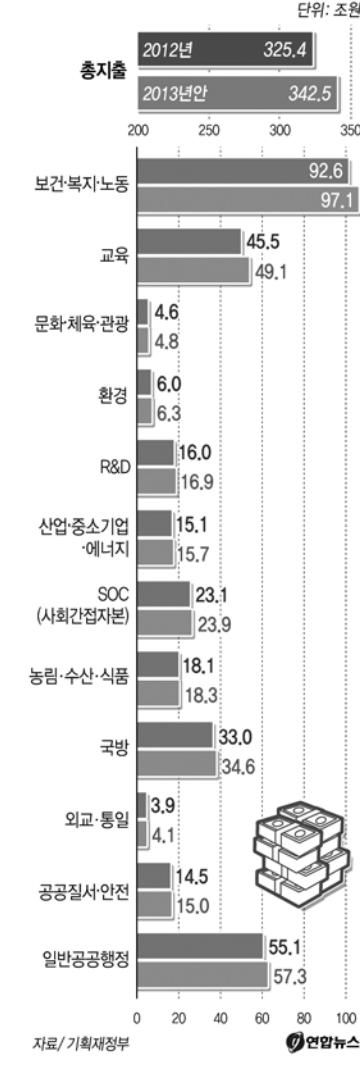
민주당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50% 가량 늘리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예산안을 11월 22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내년 예산안은 대선을 앞두고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연합뉴스

## 2013 예산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연합뉴스

## “위장된 균형예산에 복지 포기”

## 장병완 의원 비판



민주통합당은 25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총수입을 과다계상한 위장된 균형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2013 예산 테스크포스(TF) 팀장인 장병완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 열린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평가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2~3% 증가율을 경상성장을 보다 2~3%포인트 높게 잡고, 일자리 예산 5조원 가량 증액하는 한편 0~2세 무상보육도 올려처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항목은 지난 3년간 세외수

입으로 잡아왔지만 매각이 실현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포함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총지출보다 낮은 복지예산 증가율, 0~2세 무상보육 폐기, 반값등록금 미반영은 국민적 요구인 보편적 복지를 포기한 예산”이라며 “청년 등 국민적 실업의 고통을 외면한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 때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을 보다 2~3%포인트 높게 잡고, 일자리 예산 5조원 가량 증액하는 한편 0~2세 무상보육도 올려처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11조 들여 일자리 59만개 만든다

## 청년·베이비부머 초점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

내년 일자리 예산의 특징은 세계 경제의 부진으로 인한 국내 경기의 하강 가능성에 대비했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에는 약 11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책 초점은 예산으로 만들거나 보조하는 '재정 일자리'를 작년보다 크게 늘리고 고용 분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쪽에 맞춰졌다. 청년층과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한 일자리 공급도 늘린다.

◇일자리예산 10조8000억원···민간 고용시장 충격에 대비=정부는 내년 고용시장에 대한 고용지수를 10.5%로 예상했다. 유망 중소기업 인력(5만개), 글로벌·문화 일자리(2만4000개), 지역사회·교육 서비스(2만6000개) 등이다.

퇴직이 본격화한 베이비붐 세대에겐 그들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3만개 만들었다. 올해의 3배다.

9000개를 만든다. 청년·여성·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특화된 일자리를 중심으로 올해(56만4000개)보다 2만 5000개 늘린다.

전체 일자리 예산도 올해 9조9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8000억원으로 증액된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146억원을 배정해 직접일자리 참여자에게 직업 훈련을 동시에 하도록 해서 민간 고용시장의 진입을 돋는다.

◇일자리 안전망 강화···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실업급여 대상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4만명)과 영세자영업자(3만5000명)도 추가했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평균인금 125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원액은 2654억원에서 4797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재정 지원 일자리 58만

## 3G 발찌로 성범죄자 한눈에

## ■ 성폭력 근절 등 사업

정부는 25일 발표한 내년 나라살림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동·여성 성폭력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54% 늘렸으며 전국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우선 2세대(2G) 기반인 전자발찌를 3G 기반으로 바꾸는데 7억원을 투입한다. 이제 까진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실내나 자가공간 등 전자 음성지역에 들어가면 위치를 추적하기 어려웠지만 내년부터 전파 사각지대를 해소해 위치추적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112신고센터 자동응답 시스템’도 입에 14억원을 투입한다. 범죄취약지역 695곳에 이동형 방범 CCTV 1390대를 설치한다.

정신보건센터의 자살예방 전문상담인력도 100명 확충한다. 나주와 서울·춘천 등 5개 국립병원에는 학교폭력 고위험 아동 청소년(가해자)을 전담하는 정신보건상담소를 신설한다.

내년도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은 953억원으로 올해보다 9.4% 늘어난 10.6% 규모다.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 50명을 뽑아 개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연합뉴스

도 사동항에 해군 전진기지를 건설하는 예산으로 67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2015년까지 350억원이 투입되는 이 기지에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해군에 인도되는 차기호위함(FFX·2300~2500t급)과 고속정 등이 배치된다.

방위력개선과 관련해서는 율통

도 사동항에 해군 전진기지를 건설하는 예산으로 67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2015년까지 350억원이 투입되는 이 기지에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해군에 인도되는 차기호위함(FFX·2300~2500t급)과 고속정 등이 배치된다.

/연합뉴스

## 상병월급 인상·율통도 전진기지 예산 반영

내년도 상병 월급이 1만4600원 오르고, 유통도 사동항에 해군 전진기지를 건설하는 예산으로 67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2015년까지 350억원이 투입되는 이 기지에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해군에 인도되는 차기호위함(FFX·2300~2500t급)과 고속정 등이 배치된다.

도 사동항에 해군 전진기지를 건설하는 예산으로 67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2015년까지 350억원이 투입되는 이 기지에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해군에 인도되는 차기호위함(FFX·2300~2500t급)과 고속정 등이 배치된다.

/연합뉴스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서구 광천동 650-205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후문)

## 광주전역 원룸 매매 전문

서·광산·남·북·동구지역 금매물건 다양화보

1) 화정동 화정역세권, 4층 원룸, 1층상가, 원룸18개, 토지 316㎡, 건물 1440㎡, 김정가 12억4천 최저가 8천 4억7천

7천

△ 서구 치평동 역세권 5층상가주택 대지 230㎡, 건물 716㎡, 김정가 10억5천 최저가 8천 2억2천

△ 남구 봉평동 용봉IC 인근 2층상가주택 대지 160㎡, 건물 193㎡, 김정가 8억5천 최저가 7천 4억2천

△ 남구 봉평동 2층주거지역 단독주택 대지 215㎡, 건물 152㎡, 김정가 1억9천 최저가 7천 6백

△ 남구 칠석동 주거지역 단독주택(전원주택적 합) 대지 150㎡, 건물 140㎡, 김정가 1억9천 최저가 7천 4백

△ 장성 흥정면 관리지역 단독주택 대지 823㎡, 건물 235㎡, 김정가 1억1천 최저가 7천 8백

△ 광주 용봉동 대지 2315㎡, 건물 1543㎡, 김정가 22억7천4백 최저가 18억2천

△ 장성 동화면 대지 16300㎡, 건물 1365㎡, 김정가 14억2천 최저가 6억3천5백

△ 동구 내남동 주거지역 도심근교(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 최상 대지 750㎡

△ 무안 해제면 계획관리지역 마을내